

2023년 07월 09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63편 7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94(통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29장 18~25절(구약p.788)

18.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19.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20.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21.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22.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둬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23.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24.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25.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 말씀선포 /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에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이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9~11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

며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함에도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는지,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하여 우리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복을 받는 비결 또한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줍니다. 시편 1편 1~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을 받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여 오만하고 교만한 죄인의 길에서 떠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옴은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회복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의 옴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옴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1. 장수의 복입니다.

-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때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자신의 날이 모래알같이 많으리라고 말했음을 회상합니다. 이는 장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옴이 그와 같이 낙관적인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러한 약속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누릴 복을 포함합니다. 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옴의 이러한 기대와 소망과 확신은 어쩌면 예상치 못한 재앙으로 인해 잠시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옴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옴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지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옴의 삶에 복 주심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옴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옴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2. 풍성함입니다.

- 본문 19~20절입니다. “내 뿌리는 물로 뿔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옴은 자신의 삶을 나무에 비유하여 뿌리가 물로 뿔어 나가고 이슬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간다고 묘사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편 1편 3절의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 저자의 묘사와 일맥상통합니다. 즉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재앙을 만나기 전에 옴의 삶은 왕성하게 자라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옴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전보다 더 왕성하고 풍성한 복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옴기 42장 1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옴의 말년에 옴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복이 옴에게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의인, 곧 복 있는 사람은 풍성하고 번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자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옴과 같이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생명과 풍성함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3.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본문 21절입니다.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말할 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경청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의 말에 권위가 있어 사람들이 욥을 존경했음을 의미합니다. 욥의 선함과 경건함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욥을 존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는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둬들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라고 했는데 “스며들었다.” 라는 표현은 욥의 말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처럼 욥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지혜로운 자의 말에 권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말의 능력과 권위는 그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생겨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더욱 바른 삶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길을 선택한 곳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축복의 통로로서 인정과 존경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복된 자요, 복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복,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이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들입니다. 그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 노릇하며 살자 들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충만하게 내리십니다. 이 한 주간도 복 있는 자의 길로 행해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을 많은 자들에게 전하는 참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30(통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폐 회 / 주기도문